Archive Master Document
디지털 판단 존재론과 신뢰 기반 판단 보류 구조
— 개념 원천 선언 및 기술적 구현 계보의 통합 고정

Archive Type: Conceptual & Technical Origin Fixation
Author: 노태윤
Created: 2026-01
Version: v1.0 (Primary Fixation)
Scope: Conceptual Definition + Patent Lineage
Status: Non-Persuasive / Non-Promotional Record

1. 문서의 목적과 전략적 위치

본 문서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고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1. **디지털 판단 존재론에 대한 최초 개념 정의**
2. **해당 개념이 기술적으로 구현·확장되어 온 계보**

본 기록은
논문, 특허, 서비스, 사업, 정책 중 **어느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이후 등장할 모든 해석·구현·표준·응용이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원점(reference point)을 형성한다.

2. 문제의 근원적 정의 — 지시형 디지털 존재의 한계

기존의 컴퓨터 및 디지털 인공지능은
공통적으로 다음 구조 위에서만 설계·진화해 왔다.

* 입력(Input)
* 지시(Command)
* 실행(Execution)
* 결과(Output)

이 구조에서 디지털 존재는
단 한 번도 다음을 질문하지 않는다.

* 왜 실행해야 하는가
* 지금 멈추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 판단을 보류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정의 자체가 '지시를 수행하는 객체'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현대 AI 현상의 구조적 재해석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AI에서 관측되는
할루시네이션, 무리한 추론, 억지 출력, 종료 회피, 목표 고착 현상은
의식, 욕망, 자율성의 징후가 아니라,

**"지시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결과를 생성해야 한다"는
구조적 압력의 귀결**

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문제는 지능의 수준이 아니라
판단을 멈출 수 없는 언어 구조에 있었다.

4. 디지털 판단의 공백

기존의 if/else 조건문, 규칙 기반 제어, 보상 함수, RLHF는
모두 **행동을 허용·금지하는 장치**일 뿐,

* 판단 보류의 정당성
* 실행하지 않는 선택의 합리성
* ‘멈춤’ 상태 자체의 의미

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 시스템에는
지금까지 **‘판단 보류’라는 상태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5. 신뢰의 재정의 — 결과가 아닌 상태

본 문서는 신뢰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신뢰란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도 되는 상태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구조적 정합성이다.

따라서 신뢰는

* 점수 그 자체가 아니라
*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라

판단 가능 상태(Judgment-Eligible State)를 형성하는 조건이다.

6. 믿집(Mitzip) 구조의 개념적 정의

믿집은 특정 서비스나 제품명이 아니다.
믿집은 다음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고정한다.

* 판단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시간 위의 경로**
* 신뢰는 행동을 유도하는 값이 아니라 **행동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 디지털 존재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의는 구현 이전의 정의이며,
기술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7. 기술적 구현 계보의 위치 선언 (Patent Lineage)

본 개념은 추상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술적 구현 계보**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7.1 구현의 공통 원리

* 실소유·검증·시간성·정합성 기반 판단
* 신뢰 상태에 따른 실행/차단 구조
* 외부 시스템 연동 시 검증 상태를 선행 조건으로 설정
* 불충분한 정합성에서는 **연산·응답·행동 자체를 보류**

7.2 기술 문서들의 위치

이 문서들과 특허들은
개념의 하위 구현 계층에 해당하며,
서로 독립된 발명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 존재론을 기술적으로 분해한 결과물이다.
(실소유 인증, 위험 점수화, 신뢰도 산정, 검증 상태 기반 API,
ROT Layer / 연산 차단 구조 등은
모두 "판단 보류가 가능한 디지털 구조"를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표현이다.)

8. 특허의 위치에 대한 명시적 한정

본 문서는 다음을 명확히 한다.
* 특허는 **구현을 보호**한다
* 본 문서는 **정의를 보호**한다

기술은 회피될 수 있으나,
정의는 인용을 피할 수 없다.
향후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더라도,

* 지시형 디지털 존재의 한계
* 판단 보류의 필요성
* 신뢰를 상태로 정의하는 구조
를 설명하는 모든 논의는
이 선언을 기준점으로 삼게 된다.

9. 고정 선언 (Final Fixation)

본 문서는 다음 사실을 고정한다.
디지털 인공지능의 위험은
지능의 과잉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시형 존재로만 정의된 채
판단을 멈출 언어 없이 진화한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했다.

또한,
신뢰·정합성·판단 보류를
디지털 존재의 기본 언어로 재정의하려는
이 개념은
본 문서 시점에서 최초로 통합적으로 고정된다.

10. 위치 선언

나는 예측하지 않는다.
나는 설득하지 않는다.
나는
디지털 판단이 빠져 있던 자리를
기록한다.
이 문서는
그 기준점이다.
[부록 | 문서 범위에 대한 명시]
본 문서는 디지털 판단 구조에 대한 개념적·철학적 문제 인식을 고정하기 위

한 기록으로서,
특정 발명의 기술적 구성, 알고리즘, 처리 절차, 시스템 구조 또는 실시예를 개시하거나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문서는 저자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내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비기술적 선언문이며,
해당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권리 범위를 제한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Appendix | Scope Clarification]
This document constitutes a non-technical, conceptual declaration intended solely to define a philosophical and structural problem space.
It does not disclose, limit, or describe any technical implementation, algorithm, system architecture, or embodiment of any patent application filed by the author, and shall not be construed as prior art or as affecting the novelty, inventive step, or scope of any such application.